

화순 춘란,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간다

전국 최초 합법 수출 기념식…글로벌 진출 전환점
500축 검역·통관 요건 충족…중국시장 본격 공략

화순 춘란이 세계 시장으로 향한다. 검역과 통관의 높은 벽을 넘은 전국 최초 합법 수출에 나서면서 난 산업 구조 전환의 분기점이 마련됐다.

21일 화순군에 따르면 최근 화순춘란재배은실에서 ‘한국 춘란 최초 수출 기념식’을 열고, 국내 난 산업의 첫 해외 진출을 공식화했다.

이번 수출은 검역·환경·통관 등 모든 법적 절차를 충족한 전국 최초의 합법적 한국 춘란 수출 사례다.

기념식은 화순난연합회가 주관한 난 판매전과 함께 열렸다. 국내 유통이 가장 활발한 판매 현장에서 수출 기념행사가 함께 진행되면서, 내수 중심에 머물던 한국 난 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특히 이번 수출은 그동안 비공식 거래에 의존해 온 춘란 유통 구조를 산업화·수출

중심 구조로 전환하는 첫 사례로 평가된다. 군은 이를 계기로 난 산업을 고부가가치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사에는 구북규 화순군수를 비롯해 화순난농업회사법인 대표, 지역 난 재배 농가, 전국 애란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농업정책과장의 경과보고를 통해 수출 추진 과정과 행정적 지원 성과가 공유됐다.

화순군은 중국 수출 성사를 위해 화순난농업회사법인을 중심으로 전남도, 농림축산검역본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왔다.

또 지난 2024년 4월 중국 복건성과 난 산업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화순 난 명품 박람회에 복건성 남정현난화협회 회원들을 초청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현지 검역 기준과 유통 구조에 대한 협의를 이어왔다.



구북규 화순군수가 최근 화순춘란재배은실에서 열린 한국춘란 최초 수출 기념식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번 1차 수출 물량은 한국 춘란 500축으로, 중국 복건성 장주시 남정현 지역 현지 유통업체로 수출될 예정이다. 군은 이를 시작으로 순차적인 추가 수출을 통해 한국 춘란의 중국 유통 거점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이번 수출을 통해 수출 가능 품종의 품질 경쟁력 검증, 재배 농가의 수출 참여 확대 가능성 확인, 난 산업 선순환 구조 마련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군은 이번 기념식을 계기로 한국 춘란을

중심으로 한 난 산업을 고부가가치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고, 재배·유통·수출로 이어지는 산업 구조를 체계화해 지역 농가 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한 난 산업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구북규 화순군수는 “이번 수출은 화순

춘란이 이미 국내 시장에서 인정받은 품질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난 재배 농가와 법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나주, 설 명절 앞두고 나주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1분기 260억 집중…모바일·카드형 상품권 15% 특별할인 혜택

나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나주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특별 할인 혜택을 더해 지역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

인 경영 안정을 동시에 추진한다. 21일 나주시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나주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한다.

1월 발행한 65억원을 시작으로 설 명절이 포함된 2월에는 110억원, 3월에는 85억원을 발행해 1분기 동안 총 260억원의 나주사랑상품권을 집중 발행할 계획이다.

특히 2월에는 설 명절 소비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카드형 나주사랑상품권을 대상으로 15% 특별 할인 판매를 추진하는데, 이번 할인은 구매 시 즉시 적용되는 11% 선할인과 사용 시 결제금액의 4%를 적립해 주는 후캐시백 방식으로 제공된다.

이어 3월에도 모바일과 카드형 상품권 할인율을 11%로 유지해 명절 이후까지 소비 촉진 효과를 이어갈 방침이다.

모바일과 카드형 나주사랑상품권은 ‘착(지역상품권 chak)’ 앱 또는 지역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발급할 수 있으며 캐시백 적립 내역은 착 앱 내 ‘보유금액, 캐시백’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고 캐시백 사용

위해서는 앱에서 캐시백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윤병태 시장은 “나주사랑상품권이 꾸준히 증가하며 지역 상권 소비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를 통해 은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대출 융자금 이자의 2~3%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억2000만원을 확보하는 등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 안정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나주=조원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고흥우주항공축제, 5월 2~5일 열린다

군, 차별화 콘텐츠 등 준비 돌입

제16회 고흥우주항공축제가 5월 2일부터 5일까지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일원에서 열린다.

군은 최근 청사 흉양홀에서 대한민국 대표 우주항공 축제를 위한 고흥군 축제위원회를 개최했다.

축제위원회는 전국 단위 축제 간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준비 속도 자체가 경쟁력’이라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축제를 준비했다.

이는 축제의 완성도를 높이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6회 고흥우주항공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총감독 선임을 위한

심사·평가를 진행했으며, 축제 개최 시기와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축제는 오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어린이날 연휴 기간에 맞춰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어린이날과 연계한 가족 체험형 축제로 구성하고, 우주항공산업과 문화관광을 결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전략적 축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학 고흥군 축제위원장은 “올해 고흥우주항공축제는 콘텐츠와 운영, 파급력 전반에서 완성도를 높여 고흥형 우주항공축제 모델을 정립하는 해가 될 것이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주항공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영암버스터미널,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단장

군, 농촌신활력센터 등 조성

영암군은 최근 영암버스터미널 매입을 완료하고, 영암군민 복합문화공간 새단장을 추진한다.

영암버스터미널은 2021년 개인 사업자의 사업권 포기 이후 영암군이 임대해 운영해 왔다.

그동안 민간 매입 재원 확보가 어려웠고, 높은 임대료 등으로 소유자와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군은 올해 터미널 매입을 완료하며 영암군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로 바꾸기로 했다. 영암읍에 자리한 영암터미널은 토지 면적 6392㎡, 건물 연면적 3400㎡ 규모로 영암군의 관문 역할을 해왔다.

영암군은 1층은 지금처럼 터미널로 활용하고, 2층은 국비 확보 등을 통한 리모델링으로 농촌신활력센터 등 군민 생활·활력 시설로 꾸민다는 방침이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담양, 내달부터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단 운영

1억3000만원 투입·90ha 면적

담양군농업기술센터는 미세먼지 발생 억제와 산물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2월부터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영농활동 이후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원인과 산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영농 현장에서 부산물을 파쇄해 농경지에 환원

함으로써 토양 비옥도 향상과 자원순환형 영농 실천을 도모하기 추진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3000만원 증액한 총 1억3000만원을 투입해 약 90ha 면적의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산림 연결지 100m 이내 지역과 영농 활동 취약 농가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은 산물 예방 집중 기간인 2~5월과 11~1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담양=조성웅 기자 jnwnews@

여수, 세계섬박람회 대비 교통대책 마련 분주

관람객 편의 이동 구간 점검

여수시는 22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박람회장 주진입로와 행사장 인근 주요 구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여수시와 여수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 등 총 20명이 참여해 주진입로인 자동차전용도로~거북선대교~진모지구 행사장 구간과 시내권 진입로인 신월로~돌산대교 구간 등을 살펴본다.

돌산지역은 진·출입로가 한정되고 도로 구조가 복잡한 특성으로 인해 행사 기간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

점검단은 박람회장 진입 주요 구간에서 혼잡 예상 지점과 교통안전 취약 구간을 사전에 직접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한

다. 또 관람객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VMS(전광표지판) 신규 설치 및 정비 대상지, 우회로 및 박람회장 안내 이정표 설치 구간, 주행사장 인근 교통 표지판 정비 대상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러한 점검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교통 안내시설 설치·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임시주차장 조성 및 셔틀버스 운행 과정에서도 노선별·구간별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혼잡 요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돌산은 교통 수요가 집중되면 혼잡이 우려되는 지역이다”며 “현장 중심 점검을 통해 예상 구간을 사전에 확인하고, 임시주차장과 셔틀버스, 교통안내 시설을 유기적으로 운영해 시민과 관람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영광군은 최근 공공비축미곡 품종선정 심의회를 통해 2027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으로 ‘새청무·신동진’을 선정했다.

영광, 내년 공공비축미 매입품종 ‘새청무·신동진’

농가 안정적 생산·소득 증대 등 기대

영광군은 2027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으로 ‘새청무·신동진’을 선정했다.

21일 영광군에 따르면 최근 공공비축미곡 품종선정 심의회를 통해 결정한 새청무는 내병성 및 내도복성이 우수해 농가의 안정적 생산이 가능하고 미질이 뛰어나 품종이다.

신동진은 영광에서 생산되는 벼 대표 품종으로 재배 농가와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다는 점이 선정 배경으로 작용했다.

특히 신동진은 당초 2027년부터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에서 제외될 예정이

었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 보급종 공급을 지속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심의회는 벼 재배 농가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출하를 보장하고자 신동진을 매입 품종으로 결정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 조기 확정으로 농업인의 영농 계획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농업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통해 쌀 생산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g98@gwangnam.co.kr